

유노쓰항

유노쓰 마을은 일본해의 세찬 파도와 거친 북풍을 막아주는 만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1500년대 후반 모리 가문은 유노쓰를 이와미 은광과 그 주변을 장악하는 거점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곳 특유의 자연 지형을 활용하여 수심 약 20m의 만에 항구와 해안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모리 가문의 의도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서 유노쓰는 곧 이와미 은광의 은을 생산하는 주요 항만이자, 지역의 해상 교역 또는 중국이나 한반도 등 외국과의 교역 중심지로도 성장하며 놀라운 번영을 맞이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 들어서면서 유노쓰는 세토내해와 일본해를 경유하여 상업도시 오사카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기타마에부네 항로의 요충지가 되어 더욱 막대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타마에부네 항로는 지역의 유력한 가문이 해운업에 종사하며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1918년에 철도가 개통되면서 항구는 쇠퇴했고 현재는 주로 어항으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과거 번영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만을 사이에 둔 마을 끝에서 바라보이는 풍경은 몇 세기가 지난 지금도 거의 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